

<참관기>

##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

『**뽀짜실라**: 인도네시아에서 세계를 위해』 한국어판  
출판기념회 참관기

박 희 철\*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50년간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교류해 왔고, 현재의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중요성 및 의존도를 고려하면 향후 협력과 우호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의 수준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상호적이지 않은 일방적인 불균형 관계의 특성을 보인다. 한류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높은 호감과 관심을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인 대다수는 인도네시아를 잘 알지 못할뿐더러 경제력에 따른 우월함에 기초하여 인도네시아인을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sup>1)</sup> 비록 최근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많은 인구와 풍부한 자원에 따른 시장성과 잠재성이 주목되고 있지만, 이는 경제 분야에 국한된 관심에 불과하다. 향후 한

---

\*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aceppga@yahoo.co.kr

1) 고찬유. “인도네시아의 짝사랑과 한국의 무지.”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279>

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성공적인 협력과 강화된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국 국민 사이의 상이한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현재의 일방적 관심의 관계로부터 양국이 상호 이해와 관심을 갖는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인도네시아를 더 많이 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으로, 지난 10월 28일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과 한국동남아학회의 주최로 『뻘짜실라: 인도네시아에서 세계를 위해』(Pancasila: Dari Indonesia untuk Dunia)의 한국어판 출판기념회가 경기도 가평에서 열렸다. 이 책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이자 사회의 기초인 뻘짜실라(Pancasila)를 한국 사회에 소개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뻘짜실라 이데올로기 개발청(BPIP: Badan Pembinaan Ideologi Pancasila)이 집필하고, 국내의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간되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번역 작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초대하여 책 소개 및 토론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사관 관계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연구자 및 학생, 그리고 기업인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식 행사는 전제성 한국동남아학회장(전북대)과 간디 술리스트티안토(Gandi Sulistiyanto) 주한 인도네시아대사의 환영사로 시작되었고, 토론 세션은 최경희 교수(서울대)의 진행으로 김남영 대표(금성), 김형준 교수(강원대), 송승원 교수(한국외대)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 글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다. 우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뻘짜실라의 의미와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뻘짜실라: 인도네시아에서 세계를 위해』의 한국어판 출간의 의미, 뻘짜실라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 판짜실라의 의미와 내재된 가치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인 판짜실라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수카르노(Soekarno)에 의해 구상되어 1945년 6월 1일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다. 판짜(panca)는 숫자 다섯, 실라(sila)는 원칙이라는 의미를 갖기에 다섯 가지 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다섯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유일신에 대한 믿음(Ketuhanan Yang Maha Esa), ②공정하고 문명화된 인본주의(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 ③인도네시아의 통합(Persatuan Indonesia), ④대표자들의 협의에 따른 민주주의(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 dan perwakilan), ⑤사회 정의(Keadilan sosial bagi seluruh rakyat Indonesia). 이상의 다섯 원칙은 이후 인도네시아의 1945년 헌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법률 제정, 정책 결정 등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침이 되어 왔다. 또한 풀뿌리 수준에서도 인도네시아 국민의 정서적, 이념적 토대가 되어 개인의 생활방식, 사회와 공동체에서의 행동과 태도 등을 규정해 주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다문화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국가 내 종족적, 언어적, 종교적 차이에 따른 분열 가능성이 국가 번영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포용하고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짜실라를 최상위 국가 이념이자 단일한 원칙으로 삼았다. 판짜실라의 각 원칙에는 다양성 속의 통일(다원주의), 상호 존중과 형제애(인본주의, 관용), 공익을 위한 상호 협력(공동체, 공생), 평화적 방식의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협의민주주의) 등과 같은 통합과 평화를 지향하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용, 공존의 정신, 타협적 태도, 포용적 태도

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의 환영사에서 전제성 학회장은 한국인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배워야 할 점으로 타인에게 베푸는 미소, 망망대해의 로힝야 난민을 구조해 준 아체 어부들의 환대와 인도주의적 태도, 너그럽고 여유로운 문화, 겸손함과 소박함, 협의의 문화, 다문화 공존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발견되는 인도네시아인의 대표적 특성으로서, 뻘짜실라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인도네시아인의 미소와 너그러움은 관용, 어부들의 구조와 환대는 인본주의, 협의는 민주주의, 다문화 공존은 다원주의에 각각 기반하는 행태이며, 이는 뻘짜실라에 내재된 가치들이 인도네시아인의 일상 곳곳에 체화되어 실천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뻘짜실라에 내재된 관용과 포용, 인본주의, 공동체 등의 가치는 출판기념일 당일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도치 않게 이날 행사는 행락철 나들이객이 몰리는 주말과 겹쳤고, 교통 정체로 다수의 참석자가 지각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에 따라 오후 1시로 예정된 행사가 2시 이후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인 참석자들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관대한 시간 운용에 익숙한 대부분의 한국인 참석자들도 별 문제 아니라는 듯 삼삼오오 인사와 답소를 나누며 아직 도착하지 못한 참석자들을 기다려주었다. 일각에서는 느슨한 시간 개념을 잭까렛(jam karet: 고무줄 시간)이라고 조소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타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용적, 포용적 특성을 가지며, 시간 엄수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와 함께함이라는 인본주의적,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시함을 잘 드러내 준다.

사진 1. 『뽀짜실라: 인도네시아에서 세계를 위해』 한국어판(좌), 출판기념회(우)



### 『뽀짜실라: 인도네시아에서 세계를 위해』의 한국어판 출간의 의미

이 책은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뽀짜실라 관련 서적으로서, 한국 및 국외의 독자를 고려하여 주로 국제적 맥락에서 뽀짜실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책의 전반부는 뽀짜실라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노력이 소개되며(1-2장), 후반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뽀짜실라 구현 양상을 다루고(3-4장), 뽀짜실라에 기반한 대안적 세계질서를 제안한다(5장). 간디 숄리스트티안토 대사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더욱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책에 소개된 뽀짜실라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적용 가능할 것이고, 세계 평화의 기초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 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여러 종족, 언어, 종교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의 통합 이념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조화로운 다문화 공존의 모범 사례 및 노하우를 국제

사회에 소개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통로용(Gotong royong: 상부상조), 무샤와라(Musyawahah: 협의), 무파캣(Mufakat: 합의)과 같은 인도네시아에만 존재해 온 토착적 공생 개념과 타협의 관행을 소개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정신과 전통을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출판기념회의 발표자들도 공통적으로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 차별과 불공정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뻘짜실라의 소개가 전 세계에 교훈과 영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남영 대표는 뻘짜실라가 인도네시아의 소프트파워로서 국제사회에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송승원 교수도 말레이시아에서 뻘짜실라를 참고하여 루꾼 국가(Rukun Negara: 국가 원칙)<sup>2)</sup>라는 국가 이념이 만들어진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뻘짜실라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아이템이 될 수 있으리라 전망하였다.

사진 2. 출판기념회 토론 세션



2) 1970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의 국가 이념으로 제정되었다. 세부 원칙은 ① 신에 대한 믿음, ② 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 ③ 헌법의 최고 권위, ④ 법 규정, ⑤ 예의와 도덕으로 구성된다.

## 뻘짜실라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김형준 교수는 책의 후반부 내용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여러 모습을 뻘짜실라를 통해 해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인의 삶에 뻘짜실라가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협의의 통한 의사결정과 분쟁 해결의 방식인 무사와라를 연구한 개인적 경험에서 이상적인 민주주의 관행이 현실에서 실행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뻘짜실라의 다른 가치와 관행들도 현실에서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한국 사회도 뻘짜실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뻘짜실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이다. 한국은 단일종족의 국가적 배경을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거부감도 매우 심한 편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전지구화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내부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상황에 놓여있기에, 점차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필연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게다가 북한과의 통일이 실현된다면 한국 사회는 관습, 관념, 경제력 등에서 큰 차이를 갖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뻘짜실라의 다원주의 가치를 통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지혜는 물론 관용과 환대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다문화라는 분열적 요소를 국가의 자산이자 경쟁력으로 탈바꿈시킨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후 다문화를 강점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신문화와 인본주의 등 잃어버린 가치의 회복이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에 기반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물질적 풍요를 이뤄냈으나, 그 부작용으로 경제적 성과와 효율,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소유욕에 기반한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산업화 이전에 존재하던 도덕, 윤리, 철학 등 정신문화가 쇠퇴하였고, 공동체와 같은 사회 관계망의 붕괴로 개인의 고립과 인간 소외가 나타나고 있다. 뻘짜실리는 그동안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어 온 한국 사회에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며,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민의 일상에서는 도덕과 양심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각자도생에 빠진 개인들에게도 서로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셋째, 대안적인 의사결정 및 갈등 해결의 방식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은 무사와라와 무파캇, 즉 협의와 합의의 방식을 따른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된 타협안을 도출하는 관행으로서, 의견이 어긋날 때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방식을 취한다. 물론 지난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타협을 통해 이해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지지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쪽의 의견만을 취하는 다수결이나 승패가 갈리는 법원의 판결보다 민주적일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 갈등 발생 시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외부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점, 그리고 갈등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협의의 방식은 극한의 대립 속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현재의 국내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그 외에 민사 사법 시스템과 지역사회



일상에서의 의사결정과 갈등 해결에도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다.

### 앞으로의 과제

송승원 교수는 200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뻘짜실라를 다루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언급하였다. 그 이전은 수하르토(Soeharto)의 독재 시기로서 뻘짜실라가 정권의 도구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정부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지만, 2000년대의 개혁 시기 이후부터는 풀뿌리 사회의 주도로 뻘짜실라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계기를 2000년대 초반 과거 정권에 억눌린 불만으로 발생한 종교 및 종족 갈등과 이슬람주의 대두로 보았다. 종교 및 종족 갈등과 이슬람주의는 뻘짜실라의 가치와 지향에 역행하는 움직임이었으며, 위기감을 느낀 시민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뻘짜실라를 재해석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뻘짜실라의 적용과 실행에 있어 위로부터의 일방적, 하향적 방식을 지양하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필요에 따라 상향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 또는 국가로부터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실행 방식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그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 뻘짜실라를 전파하고 적용하는 방식 역시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며, 한국의 시민사회와 학계, 민간 수준에서 충분한 담론 형성을 통해 이해를 거친 뒤, 한국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적용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 특히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

가 요구된다. 뻘짜실라를 다룬 책이 한국에 번역된 사실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이 한 권으로는 뻘짜실라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사실 인도네시아에는 뻘짜실라를 다룬 책들이 대형 서점의 한 코너를 차지할 만큼 수많은 문헌이 존재하며, 이를 다루는 학문 분야도 철학과 정치학 외에도 법학, 사회학, 종교학, 역사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인도네시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뻘짜실라의 가치를 한국 사회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뻘짜실라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인도네시아 도서가 한국에 소개되어야 한다. 이번에 번역된 『뻘짜실라: 인도네시아에서 세계를 위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책이 번역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